

도요우케대신궁

- 豊受大神宮 -

Korean
한국어

-외궁(外宮)-

도요우케대신궁(豊受大神宮)은 도요우케노 오미카미(豊受大神)을 모시고 있습니다. 약 1,500년 전 이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탁선에 따라 소명되고 여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도요우케노 오미카미(豊受大神)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을 모시면서 신성한 식사를 바치는 역할도 맡아서 중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요우케노 오미카미(豊受大神)는 풍요로운 수확과 함께 우리를 축복하고 의식주를 다스리는 행복의 수호신입니다.

▶ 이미비아덴 忌火屋敷

매일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음식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궁의 신관들은 깨끗이 목욕하고 경내의 이미비아덴(忌火屋敷)에서 하룻밤을 보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화합니다. 아침 일찍 신관들은 전통적인 목제 도구를 이용해서 성스러운 불을 붙이고 신에게 바치는 음식물을 준비합니다.

▶ 정궁 正宮

외궁(外宮) 신전의 건축양식은 내궁(內宮)과 거의 같지만, 미케덴(御饌殿)이라고 불리는 신전이 있고 이것은 외궁(外宮) 특유의 것입니다.

▶ 고덴치 古殿地

이전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교대지. 다음 시키넨센구(式年遷宮) 때에 새로운 신전이 여기에 건설됩니다.

▶ 미케덴 御饌殿

여기에서는 하루 2회 신궁의 신관들이 황족의 번영과 세계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신궁의 다른 신들에게 신성한 음식물을 바칩니다. 이 의식은 외궁(外宮)이 설립된 이래 1,500년 이상 행하여져 왔습니다.

▶ 쓰치노미야 土宮

외궁(外宮)의 경내를 수호하는 신을 모시고 있는 별궁(別宮)의 하나입니다. 외궁(外宮)이 건설되기 이전 이 신은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서 모셔져 숭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 히요케다리 火除橋

이러한 목제 다리는 외궁(外宮)으로 가는 입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 가구라덴 神樂殿

의식용 음악과 춤을 봉납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는 신전.

▶ 가제노미야 風宮

바람의 신을 모시고 있는 별궁(別宮)의 하나입니다. 여기 그리고 내궁(內宮)의 가자히노미야(風日祈宮)에서 같은 신들이 모셔져 있고 이 신들은 기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 다카노미야 多賀宮

도요우케노 오미카미(豊受大神)의 일면인 웅맹한 혼에 봉납된 별궁(別宮)의 하나. 이 신사는 약 100계단의 들계단에 올라선 언덕에 있습니다.

▶ 데미즈샤 手水舎

- 본전에 가기 전에 참배자는 다음 순서로 몸을 깨끗이 합니다.
1. 국자로 물을 받아 왼손 그리고 오른손 위에 교대로 물을 붓습니다.
 2. 왼손을 등글게 오므려서 물을 받아 손으로 받은 물로 입을 행굽니다.
 3. 왼손을 한 번 더 씻고 국자를 기울여서 남은 물이 국자의 손잡이를 따라 내리도록 해서 손잡이를 씻습니다.



신궁 - 神宮 -

신궁(일반적으로는 이세신궁(伊勢神宮)으로 알려져 있다)은 125의 신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은 고타이신궁(皇大神宮, 내궁(內宮))과 도요우케대신궁(豊受大神宮, 외궁(外宮)) 주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섭사, 말사와 몇 군데 소관사(所管社)가 이세시(伊勢市) 내외에 있습니다. 신궁은 거의 파리와와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기에서 1,500 이상 의식들이 황족의 번영과 세계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 ### 신궁으로 가는 교통수단
- 철도와 버스
내궁(內宮)까지: 긴테쓰 우지야마다역에서 버스 15분
외궁(外宮)까지: JR/긴테쓰 이세시역에서 걸어서 10분
내궁(內宮)과 외궁(外宮) 간: 내궁(內宮)과 외궁(外宮) 간을 왕래하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로
내궁(內宮)과 외궁(外宮)까지: 이세 고속도로 이세니시 IC에서 차로 5분

신궁관리사무소
전화 0596 (24) 1111 <http://www.isejingu.or.jp/>

